

# 도로 폐쇄 사고 주민-구청 갈등

### 동구 계림동 재개발...새로 만든다며 기존 도로 폐쇄 주민들과 약속 어기고 설명회도 없어 집단민원 제기

“살기 좋게 재개발한다고 해놓고 멀쩡한 도로를 없애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존 주민들만 불편하게 하고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도로를 없애면서 무슨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는 지 이해가 안 됩니다.”

광주시 동구 계림동에 그나마 남아있는 단독주택, 상가 등 기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 도시의 원형이자 근간인 동구는 재개발이 속속 추진되면서 곳곳이 고층아파트로 채워지고 있다. 그러면서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주민에게 ‘재개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 동구 계림동거리, 나무전거리의 일부 단독주택, 상가지역이다.

12일 광주시, 동구청에 따르면 계림동거리, 나무전거리 주변에는 산수 1구역, 계림 5-2구역의 재개발이 끝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며, 계림7구역은 오는 2021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속속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주변 교통량이 급증하고,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동구청이 재개발 공사로 인해 신규 도로를 개설하고 기존 도로를 폐쇄하겠다고 하면서 기존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동구청은 지난 2006년 주민 합의에 의해 ‘계림교외 8m 기존 도로를 폐쇄하고, 대신 인근에 폭 17m짜리 4차선 도로를 조만간 개설한다’는 안내문을 주민들에

게 발송했다. 이 안내문에서는 “계림 7구역 내 17m 도로 개설 구간을 1구간(계림교외-구 계림2동 주민센터-계림신협)과 2구간(구 계림2동 주민센터-광교 옆 중앙로)으로 나누고 1구간 ‘ㄱ’자 도로를 2019년 6월 말 목표로 조기 개설하고, 2구간은 2020년 말 조기 개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주민들은 8m 기존 도로가

폐쇄된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 이는 입장이야. 플래그만 걸어놨을 뿐 흔한 주민설명회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또 동구청이 17m 도로와 이어지는 ‘ㄱ’자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지만, 노약자들의 보행이 어렵고, 트럭 등이 오갈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2008년 당시 동구청은 기존 주민들과 ‘좋은 동네 만들기’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8m 도로는 과거 철도담양선 구간인만큼 보존해 보행전용공간으로 만들고, ‘ㄱ’자 도로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등 개선하기로 한 약속을 파기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박모(여·64)씨는 “수십년 이상 이 동네에서 살면서 터전을 지켜온 주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기존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동구청이 기존 주민과의 합의를 뒤엎고, 재개발지역과 그 주민들을 중심으로 개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동구청은 “도로 폐쇄 및 신설은 이미 2006년 결정된 사안”이라며 “다만 과거 주민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동구청이 고층 아파트로의 재개발이 완료 또는 추진되고 있는 동구 계림동 일대의 기존 도로를 폐쇄하기로 하면서 기존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붉은 선이 폐쇄될 기존 도로다.

## 광주시 올 교통사고 사망자 확 줄인다

###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 96곳 예방시설 개선 대책 추진

광주시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보행자 사고 예방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지난해 광주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75명으로 2017년 117명보다 36% 감소한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전국 교통사고 감소율 10%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목표를 지난해보다 10% 감소한 68명으로 설정하고,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61%(46명)를 차지한 보행자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대책을 집중 시행한다.

2018년 유형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는 차량단독 7명, 차대차 22명, 보행자 46명 등이다. 시는 우선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에 특목한 역할을 한 교통 관련 유관기관 협업체임을 활용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광주시, 자치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이 공동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보행자 사고 다발구간 96곳의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개선하고 주변 경로당, 초등학교 등 학생과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상진 교통건설과장은 “올해 광주에서 세계수영 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만큼 교통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 향상과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김영록 전남지사 취임 후 첫 ‘도민과 대화’

### 18일~다음달 27일 실시

김영록 전남지사가 취임 후 첫 ‘도민과의 대화’를 추진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22개 시군을 돌며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도민과의 대화를 한다.

도민과의 대화는 도정 및 시·군정 현안 보고, 도민과의 대화, 현안사업장 방문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도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시군 현안과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군 행정지원 담당 국장 및 현안 관련 실국장을 시군 방문일정에 맞춰 참석하도록 해 시·군 주민 건의 사업에 대한 검토 및 결과도 회신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민선 6기인 지난 2016년 상반기까지 도지사와 도민과 대화를 진행했으나, 당시 이낙연 지사가 총리로 임명돼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2년 동안 도민과의 대화가 중단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 지역화폐 상공인 목소리 반영 안돼 줄속 추진”

### 장연주 시의원 주장

광주시가 추진하는 지역화폐 출시사업이 지역 중소기업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줄속으로 진행되고 있고, 광주시의 정책 부재 탓에 복구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장연주(정의·비례) 의원은 12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시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화폐를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아 보완책부터 마련하리”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광주시가 지역화폐 조례도 만들지 않았고 비공개로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 말고는 아무런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우선협상자 광주은행이 제시한 캐시백 서비스 제공조건도 일반 체크카드와 비교해 차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광주시의회 환경택 산업건설위원회도 전남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지역화폐 출시 과정에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시의회와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재고하리”고 요구했다.

이날 정무장(민주·광산 2) 시의원도 이날 시의회에서 열린 일자리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도매시장 현대화 공모사업을 올해부터 국비 지원이 아닌 용자로 전환해 자체 사업비로는 진행이 어려워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 편의 제공과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 사업이 무산된 이유는 광주시의 정책 부재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광주시는 2008년 국비 사업이 확정돼 2009~2012년 국비 123억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영업실적을 우려한 상인들의 반대로 착공도 못하다가 2011년 사업이 취소돼 지원금 전액을 반납했다. 발착까지 적용받아 2016년까지 사업을 신청하지 못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평생학습 사업 22일까지 공모 광주시·광주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을 통한 광주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광주시와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계운)이 오는 22일까지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 사업분야는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사업, 야학교육 지원사업, 대학 거점 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평생학습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총 5개 분야이며 지원규모는 총 4억1700만원으로 45여개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접수 일정 등 5개 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gie.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서 올들어 두번째 홍역환자 발생

### 필리핀 봉사 다녀 온 순천 거주 대학생 발병

전남에서 올해 두 번째 홍역환자가 발생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에 거주하는 대학생 A(여·22)씨가 지난 9일 홍역 양성 의심 환자로 판정돼 지난 11일 가검물을 다시 채취해 질병관리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A씨는 지난달 14~30일 필리핀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온 뒤 온몸에 붉은 점이 돋아 순천의 한 병원에서 수도 환자로 분류돼 치료를 받았으나 가검물 검사를 통해 홍역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A씨 등 봉사활동을 간 일행 33명 중 남자 대학생 한명이 지난 7일 유사한 증세를 보여 격리해 치료 중이며 가검물 검사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도 신안군에 거주하는 필리핀 출신 B(여·39)씨가 친정에 다녀온 뒤 지난달 29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홍역은 RNA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병하는 질환으로, 전염성이 강해 감수성 있는 접촉자의 90% 이상이 발병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발생률이 인구 100만 명당 0.52명으로 떨어졌으며 간혹 해외 유입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선로 걱정없는 엘림형 태양발전소 분양

## 선착순

###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림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